

##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예술 천재들

《20인의 한국 현대미술가》 펴낸 오광수씨

미술평론가이자 커미셔너인 오광수씨(58·환기미술관 관장)는 그야말로 미술계의 마당발이다. 회화·조형·사진 등 각종 전시회에 가보면 심심찮게 그의 이름과 맞닥뜨리게 된다. 작가의 작품세계 소개나 평론활동에 누구보다 열심이기 때문이다.

“미술사는 몇 사람의 천재에 의해 엮어진다”는 말처럼 한국의 현대미술사도 굵은 궤적을 남긴 몇몇 뛰어난 화가들이 이끌어 왔다. 오관장이 펴낸 《20인의 한국현대미술가》(시공사)는 바로 그런 화가들의 작품세계와 한국현대미술의 계보를 정리한 책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맥락을 짚어보는 의미에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우리의 대표적 화가들의 작품경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국 한국현대미술사를 정리하는 작업이지요.”

우선 새로운 한국화의 영역을 개척한 화가들의 작품론을 1권 〈전통과 변혁〉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란 입장에서 다양한 작품세계를 펼친 서양화가들의 작품론은 2권 〈자연과 조형〉으로 묶었다. 또 실험적이고 개혁적인 작품세계를 보인 작가들을 꼽아 3권 〈의식과 방법〉으로 정리했다.

“다양한 표현기법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가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정서를 담아낸 작가들을 모았습니다. 창조적으로 우리 것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술가가 아닐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다면 기교가 뛰어나도 공허한 법입니다.”

국적불명의 작가는 좋은 작가가 아니라는 오관장은 근래 한국화단에서 활발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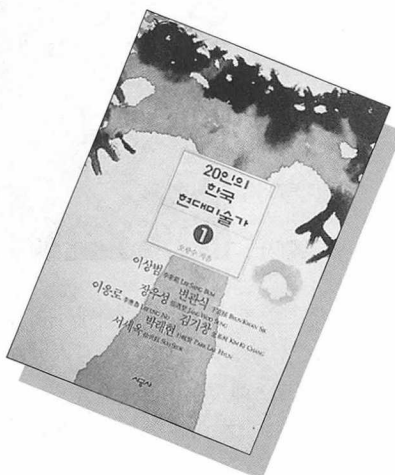
논의되는 ‘한국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도 이런 맥락에서 짚을 수 있다고 밝힌다. 전통형식과 서양화의 이질적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가 예술가들의 고민이라는 것.

현재 우리는 온통 미술품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예술은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과 패션, 대중매체, 거리에서 만나고 소비한다. 예술이 생활과 유리됐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예술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오관장의 생각이다.

“인간의 오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지식과 감정, 세계관과 가치관 등을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이지요. 미술교육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감정과 상상력을 진작시키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2년전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을 설치하는 성가를 올렸던 그는, 오는 5월 다시 베니스 비엔날레의 커미셔너로 활동하게 된다. 저술활동에도 의욕적이어서 연말쯤 우리 미술비평의 흐름을 다룬 《근대미술비평사》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 마정미 기자



## 평면적 사고에서 입체적 사고로 전환해야

《출판기획의 테크닉》 펴낸 최봉수씨

책으로 만들어 내고(Hit), 책이 독자들의 호응을 받을 때 충분히 각인시켜 스테디의 자리에 올려 놓고(Fit), 미련 없이 다음 기획으로 옮겨 간다(Run).”

최씨는 책의 수명이 짧아져서 앞으로는 스테디셀러가 드물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울러 출판환경이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으며 출판인은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판기획자는 멀티미디어 기획자로 ‘전화(轉化)’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자매체의 평면적 사고에서 탈피해 입체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에는 ‘출판 유행’도 다녀왔다. 1년 동안 미국에서 영화 기획과 저작권 문제를 공부했다. 유학을 떠나면서 출판사에는 사표를 냈기에 지금은 ‘실업’ 상태.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손길이 있지만, 관망중에 있다. 능력을 인정받는 출판기획자인 저자가 산출한 이 책의 예상 판매부수는 ‘5천부’다. — 최성일 기자

젊고 유능한 ‘제4세대’ 출판인에 속하는 최봉수씨(36, 출판기획자)의 출판계 입문은 좀 늦은 편이다.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어나간 노동운동가의 삶을 정리하고,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 출판사와 인연이 닿았다.

“면접 때 박은주 사장이 석달동안 마음대로 일한 다음,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러더군요.”

출판의 ‘줄’ 자도 모르던 최씨에게 김영사에서 수습시절은 신세계에 대한 눈뜸의 과정이었다. 원고 그대로 책을 내는 줄 알았는데, 필요에 따라 내용을 첨삭하는 편집과정이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직원 수가 적었던 탓에 최씨는 수습기간 동안 편집에 관련한 거의 모든 일을 조금씩 해볼 수 있었다.

삼개월 후, 최씨는 정식직원이 된다. 92년 그의 나이 31살 때였다. 입사 석달만에 과장이 된 그는 녀달 후에는 부장으로 승진한다. 그리고 5년 동안 편집부장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신화는 없다》 등의 베스트셀러를 기획, 편집했다.

《출판기획의 테크닉》(살림)은 최씨가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정리한 출판기획의 매뉴얼이다. 원고의 검토, 출간의 가부 판단, 표지 문안과 본문 구성, 홍보와 광고, 초판 제작부수, 반품 및 재고 처리 등에 대해 출판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도움말을 주고 있다.

‘히트, 피트, 앤드 런’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독자들의 기호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최씨가 고안해낸 전략.

“아이디어가 살아 있을 때 그것을 재빨리





## 하늘까지 받아들인 무신앙의 세계

《한국 무(巫)의 세계》 펴낸 조흥윤씨

등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20~30만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무신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처럼 죽음의 세계를 금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의 환경친화적인 사고가 근대적인 인간 중심의 세계에 ‘땅’을 받아들였다면 무신앙의 세계관은 하늘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巫)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목(神木) 내지 우주목(宇宙木, cosmic tree) 들레에서 춤을 춤으로써 천지인(天地人) 3계의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근간에 활발한 신비주의나 초현실주의도 이런 맥락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조교수의 생각이다. 하지만 과거에 학문이 포함하지 못했던 분야를 포함한다는데 의미가 있지, 자극적이거나 상업적인 성격은 단호히 배격한다.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민족학을 공부하는 동안 한국 무신앙의 연구가치와 가능성을 알았다는 조흥윤 교수는 곧 출간할 《한국 무(巫)의 역사와 현상》에서 한국 무신앙을 본격적으로 해부한다. 또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떠도는 귀신 이야기가 잡귀를 준동시킬까(?) 염려스러워 신령의 계보를 밝히는 글을 쓰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다.

— 이현주 기자

무속인들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내리고, 귀신이야기가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 유포되고 있다. 《한국 무(巫)의 세계》(민족사)는 이런 ‘우려할만한’ 분위기에 일침을 가하는 진지한 연구서다.

“점복(占卜)이 무당의 역할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책을 펴낸 조흥윤 교수(50, 한양대 문화인류학과)는 점복 위주로 무당을 이해하는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오해라고 말한다. ‘무(巫)’는 본래 우리나라의 전통종교다. 하지만 조선시대 성리학의 득세와 서구 기독교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무속(巫俗)으로 낮추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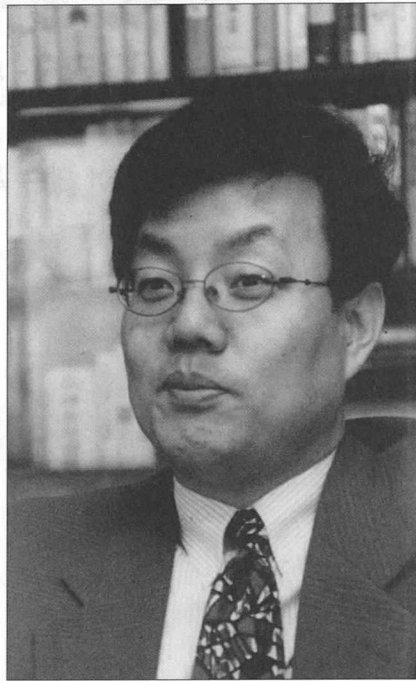
“요즘은 상업주의로 더욱 혼란합니다. 제대로 된 이론서가 필요합니다.”

종교로서 무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신(神)과 신도가 있고, 사제(무당)와 예배형식(굿)이 있고, 무가(巫歌)라 부르는 경전이 있다. 외래종교인 불교와 유교, 기독교는 무신앙의 토대 위에 받아들여졌다.

“무신앙은 기층종교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의 원형입니다.

부족국가시대의 영고나 무천 같은 제천행사를 ‘하늘에 제사 지내고 춤추며 논다’고 표현합니다. 영락없는 굿판 모습입니다.”

장소를 정화하고, 먼저 큰 신령을 모시고 마지막에 잡귀까지 불러 한바탕 놀아야 끝나는 굿판의 신명과 조화가 우리 문화의 원형을 이뤄왔다. 특히 동아시아의 무신앙이 중국은 도교에 흡수되고 일본은 불교와 습합하고 말았다면, 우리나라의 무신앙은 ‘현재진행형’이다. 과거에는 화랑도·동학



## 배타적 민족주의가 초래한 전쟁

《발칸분쟁사》 펴낸 김성진씨

것이 비극의 씨앗이었다는 김성진씨의 설명. “세르비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발칸지역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세르비아인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인

‘대(大)세르비아주의’와 발칸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슬라브 민족간의 평등한 단합과 국가건설을 추구한 ‘유고슬라비즘’의 갈등이 유고내전의 핵심적 요인입니다.”

‘대세르비아주의’라는 세르비아인의 민족주의는 현실에 기초하기보다는 과거의 신화, 꿈에 의존한 과거지향적이며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다고 분석하는 김성진씨는, 사회주의의 이념 밑에서 억지로 눌러 있던 민족문제가 폭발한 것으로 발칸분쟁을 해석하기도 한다. 동유럽의 민주화과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성진씨는 앞으로 헝가리에서 이루어진 협상에 의한 체제변화과정과 알바니아와 북한을 비교연구할 계획이다.

“발칸분쟁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주는 반면교사인 셈입니다.”

— 박남정 기자

발칸 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5만명이 살상당하고 2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은 비록 1995년 휴전협정으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전쟁의 위기는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아직 내전중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여긴 탓일까. 발칸의 분쟁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하다. 그리고 그 무관심은 무지로부터 비롯된다. 이 지역에 대한 변변한 역사서 하나 없는 상황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김성진(39, 중앙일보 전문기자)씨가 최근 펴낸 《발칸분쟁사》(우리문화사)는 이런 점에서 눈길을 끄는 책이다. 이 책은 분쟁과 갈등에 초점을 두고 발칸반도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살피으로써 유고내전의 역사적 배경과 핵심적 요인을 밝힌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발칸반도의 역사와 유고내전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헝가리 유학 중에 유고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전에도 몇 번 들러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오르더군요. 도대체 이 ‘더러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을 접어들 수가 없어서 추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발칸 분쟁의 역사적 기원은 오래다. 발칸반도의 최후 정복자로 슬라브인이 등장하면서부터. 발칸의 서북쪽에 정착한 슬라브인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로 불렸고 동쪽에 정착한 슬라브인은 세르비아라고 불린다. 각기 다른 지역에 정착한 슬라브인들이 동방문화와 서유럽문화라는 각기 다른 문화를 흡수한

